

## [해녀노래] 이어싸나...힘겨운 세상사 풀어낸다

등록 : 2005년 08월 07일 (일) 19:22:40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를 얘기하면서 '해녀 노래'를 빼놓을 수 없다.

해녀 노래는 제주도 잠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로, 오돌또기·멧돌 노래·산천초목·봉지가와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5수에 든다.

해녀노래는 제주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될 정도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햇노래'의 일종이지만 해녀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잠녀라는 특정한 집단에서 '물질'(해녀작업)을 하기 위해 오갈 때 타는 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라는 점이 그렇다.

제주도 해안마을이면 해녀노래가 전해진다. 가락은 한가지지만 지역이나 부르는 전승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 해녀노래 전승자인 김영자·김등자씨는 제주도 동쪽인 구좌읍 행원리에서 태어난 자란 잠녀들로 서쪽 해녀노래에 비해 조금 빠른 가락의 해녀 노래를 부른다.

노동요인 만큼 정해진 사실이 없는 것도 해녀노래의 걸쭉하고 생동적인 맛을 더하는 부분이다.

소리를 하는 장소가 운동성이 많은 배 위인데다 계속해 노를 저으며 둘 이상이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매끄럽게 가다듬어진 사실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철저히 작업하는 것에 맞춰 억세고 힘차게 하는 소리인 만큼 길게 이어지기 보다는 비교적 짧고 낮에 만 불리다 보니 쉬다가 다시 부르거나 해도 비슷한 사실이 되풀이됐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녀 노래는 해녀작업의 출발에서부터 잠수작업과 작업 목적 등 물질, 잠녀 출가(出稼) 과정, 잠녀 출가 생활, 신세한탄과 연모의 마음 등 여정과 애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눈(물안경)과 태왁 빗창, 정계호미(해조류를 베는 낫), 골각지(호맹이·가꾸리·성계·문어 따위를 캐는 갈퀴리 모양의 도구) 등 도구를 챙기고 수심 깊이 무자맥질하는 모습, 목숨을 걸고 해산물 캐는 상황 등이 가감 없이 노래 가사가 된다.

"돈아 돈아 말모른 돈아/ 돈의 전체곳 아니민..." "서른 어멍 날날적에 해도 달도 웃인날에 나를 낳아 놓아신가 나일름을 불으지 말라..."

바다밭에 몸을 맞기고 억척스레 벌어들인 소득으로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등은 해산물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동해로 서해로 옮겨가며 터를 잡아온, 또 고난한 일을 대물림하는 상황에 대한 한이 녹아 있다.

“가다 오다 만난 임은/느티나무 쟁반에 메밀 범벅/예문 예장 드린 임은/은 양푼에 찹쌀 범벅” 등에서는 짧지만 해학 섞인 웃음이, “정든님이사 놈을 준달/요네착사 놈주리아(이 노를 남에게 주리아)…” “요 어깸 놓앗다근/논을 사카 밧을 사카/놀릴데로 놀려보자” 등에서는 반어적 표현 속에 숨은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출항한 잠녀들이 낚싯거루나 돛배를 타고 물질 오갈 때 여럿이 노를 저으며 노동의 더께를 덜어 냈으며 해녀작업을 결사적으로 끝어가는 강한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녀노래는 잠녀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존재의 작업이 현실적으로 표현되고 그 생동감이 적절히 녹아있는 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작업의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해녀노래에 대한 자연적 가창기록은 사라졌고 20년쯤 전부터는 편곡된 형태의 해녀노래가 확산되면서 해녀노래도 본연의 해녀노래와 공연 및 대중화를 위한 해녀노래로 나뉘었다.

현재 전승자를 통해 그 명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록 및 기록 작업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녀노래를 제대로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잠녀 자체에 대한 다원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부분으로 전승의 필요성을 위한 도민 등 일반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특별취재반>